

시론

5월은 가정의 달



양 주승 본지 지문위원장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누군가 말했는데 실록뿐 아니라 어린 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달로 이어지는 열 두달 중 가장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달이다.

어린이는 나라에 보배라고 어린 이날을 휴일까지 정하고 야단법석 이면서 정작 자식 낳기는 싫다는 씬음증이 많다. 이상한 현상이다.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이면 본인에게도 보배일 것을. 보배는 귀하고 귀한 것이라 하나만 갖고 돌 셋 넷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선량한 아이들이 된다.

그 내면을 보면 몸매관리 때문에 하나만 낳고 돈벌기 위해 하나만 낳고 기르기를 힘들어서 하나만 낳는다는 말이 현실이다.

요즘 세대는 보배 찾아 일만리도 서슴치 않고 가고, 보배라면 친인척도 친구도 가리지 않고, 내것 만들기에 혈안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보배부터 찾았다면 어쩌겠는지 고민 하고 싶다.

꽃이 제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보배중의 보배는 태의 열매인 자식 번성이 아닐까? 요즘 사람들은 자식 낳기는 약간의 거리는 두지 만 자식 사람만은 지극히 도를 넘어 패가망신도 자초함을 곳곳에서 보면서 좋은 것도 지나치면 화가 됨을 경고한다.

자식 건강하게 기른다고 좋다는 것 다 먹고 다 사주다보니 풍보가 되고 도깨비장난감의 친구가 되어 삼하좌우 분별력 떨어져 저 혼자서 원(圓) 그리며 돌아간다. 부모육심 눈높이 채우려고 학원이란 학원 다 보내지만 그래도 성애 안차 조기유학 보내니 기러기 아빠되어 교육환경 원망하고 사회환경 원망한다.

자식 잘됨 바라거든 "仁 義 禮 智 人性之綱" 인의예지 는 인성의 근본이다. 을 먼저 가르침이 마땅하지 않을까? 인성의 근본이 흔들리면 바로 가정이 흔들리고 연쇄적인 현상으로 사회가 흔들린다. 현대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왜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부모들은 자녀가 자랑스럽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것 같다.

부모와 자녀는 인간관계의 기본인데, 자녀들이 옳게 살고 지혜로 우면 부모는 자녀를 둔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삶을 배웠다.

자녀들은 부모의 생활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생각해 보자. 자녀가 잘못 한다고 야단치지만 실은 그자녀는 그부모에게 배운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존경받을 만큼 생활해야 한다.

물론 쉬운일은 아니지만 자녀앞에 사랑스럽고 떳떳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중용에서는 먼저 가르치는 구절이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을가르쳤는데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됨을 알고 사는 세상이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보니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의 어두운그림자가 가정으로 엄습한다.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자제가 필요할까?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부모는 자식을 자랑스러워 하고 부부는 서로를 존경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면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안락한 가정이 될 것이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지나친 기대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된다고 생각한다.易地處之란 말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간에도 많이 생각해 볼 말이다.

교육학자 벤자민 블룸은 사람의 환경은 물질환경과 언어환경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물질환경보다 언어환경이 훨씬 소중함을 강조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언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못해 주었다고 속상해 하지만 정말 속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해주지 못한 것이 아닐까? 보약을 찾는 필요 없다.

따뜻한 말을 주는 것이 보약보다 소중하다. "나에게 당신이 소중해요"라는 그 한 마디가 상대방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그 말이 남편을 건강하게 하고, 아내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며 가정의 붕괴라는 말은 요원할 것이며 우리 가정은 항상 푸르고 밝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겠다.

성경은 칭찬하는 말이 빠른 운택하게 한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칭찬하는 말이다.

오월은 가정의달 우리모두가 가정의 편안과 번창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點 線 圓을 만들어 보자.

1. 작명의 의미

호사유피(虎死留皮) 인사유명(人死留名)이라 하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그런가 하면 천불생무죽지인(天生無無緣之人)이요, 지부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라고 하여, 하늘이 녹 없는 사람 즉 쓸모없는 사람을 낳지 아니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천지만물(天地萬物)에게는 이름이 다 있게 마련이다.

한자 인간에게는 이름이 다 있게 마련이고 이승에서 부르던 이름이 저승에 간 후도 계속 불러주게 된다.

주자는 유명천추(留名千秋)라 하여, 이름이 오랜 세월까지 전한다는 말이고 유교에서는 명체불이(名體不離)이라고 하여, 이름과 몸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 사물에는 이름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흔히들 좋은 이름 하면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보기도 좋으면 더없이 좋은 이름으로 양명(良名)이라고 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악명(惡名)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자가 지니는 의미도 좋으면 더 바랄 게 없는데 알명하지는 것이 작명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름 짓기 즉 작명(作名)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좋은 이름 짓기에 부심(腐心)했었고, 이름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運命)이 결정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기왕에 부르는 이름을 쓰기·부르기·보기·뜻이 좋은 글자를 택하는 과정이 작명이라고 하겠다.

특히 동양문화권(東洋文化圈)에 있는 나라의 국민이 더더욱 이름에 대하여 애착(愛着)이 크며, 귀한 자녀들에게 재산과 논밭을 주느니 보다 좋은 이름과 건강을 주라고 누군가가 갈과(喝破)하기 까지 했다.

아무개는 이름이 좋아 출세하고 이름이 나빠 단명(短命)하거나 출세를 못했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과연 그런 지를 확인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우리 포천 시에서는 시 승격 기념 '아기 이름지어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포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좋은 이름지어주기 추진으로 지난 2월 25일에 7명의 작명위원에게 위촉장을 시장이 수여(授與)하고, 3월 1일부터 작명이 시작되어 그동안 기대 이상으로 실적을 올려 시민의 호응(呼應)을 얻고 있다고 하겠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출생아의 출생 일시, 장소, 성별, 부모의 성명, 기출생자의 성명,

자·슈·기·고

작명(作名)에 대한 소고(小考)



박 동 규 전 영북중고 교장·포천시 작명위원 영북초대인재학 학장

항렬자(行列字), 신칭인 사항 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시청 기획담당실이나, 작명위원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작명위원에게 배당되어 1~2일 이내 작명을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다.

2. 작명의 방법

필자는 어려서 중부(仲父)님 때 미은서당(美隱書堂)에서 한문 공부하면서 중부님께서 작명하시는 광경을 수없이 보았다. 인근동(隣近洞) 일대에서 출산(出生)후 찾아와 작명을 의뢰하

아 작명해 주어 경북 구미로 이 사 간 지 30여 년 만에 작명해준 당실이나, 작명위원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작명위원에게 배당되어 1~2일 이내 작명을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다.

작명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선 동족간(同族間) 서차(序次)를 나타내는 이름의 상하자(上下字)의 세대별로 교차된 돌림자 항렬(行列)을 확인하고, 한자의 총획수(總劃數)로 음양(陰陽)으로 확인해서 3자 성명의 음양(陰

양기 때문이다. 글자의 선택과정에서 한자는 뜻글자로 즉 일자다의(一字多意)의 한자기 때문에 여러 개의 뜻 가운데 좋은 뜻을 가진 것을 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 성씨의 가문에서 로(老)를 행렬자로 했는데 '늙다·노인'의 뜻이 아닌 '익숙하다·우두머리'의 의미로 택해야 할 것이요, 우(愚)자를 이름자로 한 사람은 '어리석다'가 아닌 '우직하다'의 뜻이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늙고 어리석하기를 바랐겠는가.

포천시 아기이름 지어주기 운동

면 장시간 동안 작명책자를 통해서 작명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지금 작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한다.

필자의 본명(本名)은 물론 학림(學林)이라는 호(號)도 한학자 이신 중부님께서 작명해 주셨는데 학림은 '배움의 숲, 학자나 학생이 숲처럼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학교에서의 여러 학생들과의 교학(敎學) 의미로 내 교직에 대하여 호망(好望)하고 호를 미리 주시지 않았는가 한다.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건만 흠 모(欽慕)의 정이 더해지기만 하는구나.

오래 전에 서울 서점에서 '김중기 권 이름 짓는 법 책' 김백 일환으로 포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좋은 이름지어주기 추진이 있는 대로 계속 탐독하였다.

그 후부터는 자식의 이름부터 직접 작명하기 시작하여 조카, 손자, 이웃 아이들 이름 그리고 상호(商號)를 수 없이 지어주곤 했다. 4월부터 동아문화센터에서의 불 강좌 '김동완의 성명학' 강좌를 수강하여 작명에 대한 식견을 더 넓힐까 한다.

지난 정초에는 필자 이웃에 살

陽)을 상호(相交)로 하고, 오행(五行)의 상생(相生)으로 글자를 배치해서 이상 3 가지 조건에 맞는 한자를 택해서 작명공정을 그치게 된다.

한자의 선택은 뜻과 음이 좋으면서 글자의 모양새도 좋고 획수가 그리 많지 않는 한자로 최종 선정해서 작명 후 해설을 덧붙이고 예비명(豫備名) 2가지를 지어주면 부모가 최종 선택하여 출생신고토록 했다.

한자 가운데 벽자(僻字), 약자(略字), 난자(難字), 속자(俗字), 일자다음(一字多音) 등의 한자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 명인(名人)의 이름을 차용(借用)하는 것은 특히 삼가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금휘(禁諱)라고 하여 선조(先祖)의 이름을 따서 작명하는 것도 금기(禁忌)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자의 자획(字劃)을 정확히 필서(筆書) 해서 획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한 획이 틀려도 전연 영통한 작명이 된다. 성씨 가운데 李·朴·林·權 등의 한자는 부수(部首)가 木 자이기 때문에 내려 굽는 '으로 써야지'로 써서는 안 된다.

나무뿌리가 땅속을 뚫어야지 밖으로 표출해서는 잘 성장하지

않은 남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한글 이름 가운데 슬기·보람·아람·사랑·나나·아름 등이 많고, 한자 이름으로는 왜식(倭式)의 정자·순자·숙자 등 흔한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가끔적이면 흔히 부르는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비근한 예지만 우리 노인대학에 입학한 85명 학로(學老) 가운데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하나의 이름에 사람이나 되어서 출석부와 좌석에다가 가·나·다를 표시해 구분해서 출석 관리하고 있다.

일단 작명해서 출생신고 후는 다른 작명가에게 해설을 구하거나 더 좋은 이름으로 개명(改名)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묘지(墓地)도 장례 후는 다른 지관(地官)에게 물어보면 대개의 지관이 이장(移葬)을 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작명해서 출생신고 해야 한다.

개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법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작명해서 출생신고 해야 한다.

3. 작명과 항렬(行列)

작명에서는 항렬(行列)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렬은 세대의 차별은 물론이요, 동족간(同族間)의 서차(序次)를 나타내는 의미가 크며 옛날에는 절대 중시했는데 근간에는 씨족(氏族)내지 종족관념(宗族觀念)이 희박(稀薄)해지면서 항렬을 개념(概念)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작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상의 뿌리를 찾고 상문송조(尙門崇祖)의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항렬자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항렬자는 씨족 문중별(門別)로 미리 마련되어 있는데 주로 오행상생(五行相生)에 의하여 수·목·화·토·금(水·木·火·土·金)으로 오행(五行)을 1주기(週期)로 해서 연속되어지게 된다.

그 밖에 천간·지지(天干·地支)로 표기하고, 수자로 서수(序數)로 나타내는 가문(家門)도 더러 있다.

그런가 하면 한글세대들의 한글이름을 선호(選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도 자음(子音)순으로 항렬자로 정해서 순 한글 식 작명도 제의(提議)해 보지만 주리·메리·안나 등 서구식 이름의 작명을 아직은 주저하게 된다.

지금까지 항렬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어느 종벌의 것이든 정해서 자손들의 서차(序次)를 나타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몇 가정의 오행 항렬자를 정해 주시기도 했다. 항렬(行列)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는 5행 항렬, 10 천간(天干) 항렬, 10개 한수자(漢數字) 항렬, 14자 한글 자음(子音) 항렬을 가정·가문·씨족 간에 약속해서 공동으로 사용함이 좋지 않을까 한다.

4. 작명에서의 양명(良名)

우리 동양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대개가 한자(漢字)로 작명하게 되는데 한자는 뜻글자로 뜻을 나타내게 되어 있으므로 이름자의 상징적(象徵的)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존재는 수리(數理)·음양(陰陽)·오행(五行)으로써 생성(生成)하여 존재하고 있는 만큼 성명(姓名)에 관한 것도 그런 원리(原理)에서 작명법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작명의 의미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모를 나타내내는 것으로 심원유아(深遠優雅)하고 웅대호방(雄大豪放)하면서 고상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남성의 이름이 여성적이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여성의 이름이 남성적이어서는 좋지 않다. 이름은 부르기 좋고 쓰기 좋으며, 듣기 좋고 뜻이 좋으면 더 없는 좋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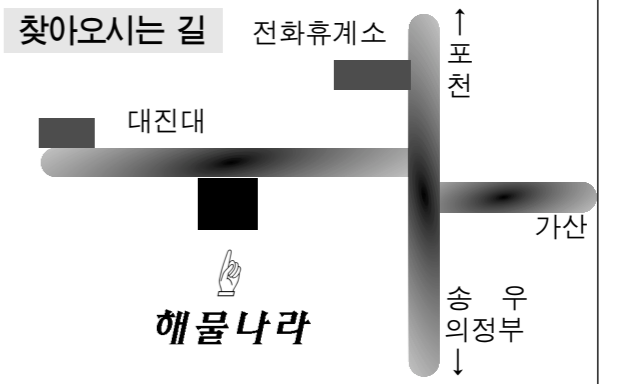
부족함이 없는곳, 꼭 한번 가고 싶은곳 !!! "해물나라"

매콤 달콤한 아구찜 과 얼큰 담백한 해물탕



메뉴

- 해물탕(특대 50,000 대 40,000 중 30,000 소 25,000)
- 아구찜(대 40,000 중 30,000 소 25,000)
- 낙지볶음(대 40,000 중 30,000 소 25,000)
- 생선구이 5,000
- 해물된장 5,000
- 대구탕 5,000



* 넓은 주차 공간 확보. 연회석 완비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99-3 예약문의 : (031) 541 - 5282 대표 : 지화자